



4면
동북복지정책
추진동력 장각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음 5월 9일) 제2566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상 실현”

제11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송지용 의원
제1부위원장 최영일·제2부위원장 황영석 의원 선출

제11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송지용(완주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2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총 37표 중 33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제1부위원장은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부위원장은 황영석(김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송지용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도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직 도민과 의원님들만 바라보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장은 “무엇보다 임기동안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발전하는 전북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송지용 최영일 황영석
신뢰받는 의회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의장 선거에서 최영일 의원은 32표를, 황영석 의원은 31표를 얻어 당선됐다.
최영일 부의장은 “도의회가 참된 대의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나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열린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26번째 코로나 확진... 익산 거주 60대

사업차 대전역 근처 식당서
대전 74번째 확진자와 만나

A씨는 23일 오후에 흥내과 의료가관에서 진료후 24일까지 자택에 머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5일 익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체를 의뢰, 26일 새벽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와 익산시는 동선공개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촉자 파악에 나선 상황이고 A씨 자택 및 방문했던 장례식장과 의료기관은 소독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검사위해 설문지 작성하는 시민들’ 도내 2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익산시 곳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지난 26일 익산시 보건소에 물린 시민들이 확진 검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 검사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사에 매진할 예정이다.

도내 방문판매업 903곳 현장점검

전북도, 관리 강화...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방문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일파면과 번지자 전북도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관리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난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3일 방문판매업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도내까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데다 도지사의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다.
전북도는 도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에 대해 각종 운영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아울러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와 시·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행행사를 신고받아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방문판매업체도 신고 받아 철저하게 점검,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센터, 280-3255~6),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 발표

신현승 군산 부시장
곽승기 정읍 부시장
내정자 등 총 6명



<군산 부시장> 신현승 <정읍 부시장> 곽승기 <완주 부군수> 리태일

전북도가 지난 26일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들은 신현승 군산 부시장(58), 곽승기 정읍 부시장(58), 리태일 완주 부군수(56), 송금현 무주 부군수(53), 장형섭 장수 부군수(56), 박현규 부안 부군수 내정자(54) 등 총 6명이다. /유호상 기자



<무주 부군수> 송금현 <장수 부군수> 장형섭 <부안 부군수> 박현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